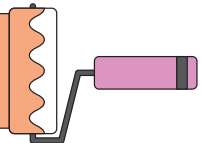


“‘좋은 작가’, 그 자체로 경쟁력 갖는 발판 필요”

새로쓰는 예향 지리지 <2>광주화단 떠오르는 얼굴들



유지원 “작업 지속할 원동력 필요”
고차분 “지역성 덜어내는 노력을”

최근 광주화단의 새로운 얼굴들이 눈길을 끈다. 어느 시대든 새로운 세대가 채워지기 마련이지만, 광주화단의 어느 시점과 세대를 지나 장르의 다양성을 펼쳐 나간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광주의 예술 관련 주요무대에서 특별한 설치미술을 보여준 유지원 작가와, 지역을 넘어 전국 미술 애호가들의 ‘픽’을 받는 고차분 작가를 만나 ‘광주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유지원, 설치작업 새 이정표

소멸된 건축적 이미지를 차용해 설치작업을 선보여 화단의 주목을 받은 유지원 작가는 전업작가로서 지난해 가장 바쁜 시간을 보냈다. 지난해 3월 전국에서 주목할 만한 청년작가 기대주 4인을 꼽는 제23회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을 시작으로 4월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 본전시 참여까지. 광주에서 큰 무대 2개에 잇따라 설 기회가 주어진 것. 이후에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모전시, 인도네시아 교류전시, 최근 조선대 올해의작가 선정 등 미술계에 ‘유지원’ 세 글자를 각인시키며 괄목할만한 이력을 쌓았다.

유 작가는 예술인생 새 챕터를 준비 중이다. 오는 9월 조선대 미술대학 현대조형미디어전공 전임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쓴다. 광주에서 설치작업을 주로 이어가며 매체 다양성을 넓히는 데 한몫한 그 나름의 고충은 없을까? 그는 “작업 스케일이 크니깐, 비용적 측면 등 현실적 문제도 있지만, 요즘은 장르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고 있어 구분하지 않는다”며 “광주도 이 지역 공간 전체를 아우르는, 다양하고 트렌디한 예술작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자로서 후배들을 위한 길을 닦고 싶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학 졸업 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일본과 프랑스에서 긴 유학생활을 보냈다. 먼 타국에서 작품세계에 대한 치열한 고민 끝에 다시 돌아온 곳은 ‘광주’였다. 그는 “마주한 광주는 곳곳이 재개발로 허물어지고 다시 조성되는 과정에 있었다. 버려지고 부서지는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며 “자연스럽게 광주의 단면에서 작업이 시작됐고 시립미술관, 문화재단 등에서 레지던스 참여작가로 선정되면서 광주에 머물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에는 국공립·사립 미술관을 시작으로 비엔날레, 국립아

‘주목받는’ 광주 청년작가 20인

작가	작품세계 한 줄 평
고차분	수행자의 그 끝, 영원한 안식처로서 집
김설아	미약한 생명체의 상실과 소멸에 대한 기록
김자이	나의 내면과 조우하는 휴식의 미학
문선희	현대사회의 이면, 생명에 대한 근원적 질문
문창환	허구와 실재에 대한 의문, 재창조되는 공간
박인선	오래되고 낡은 도시건물의 뿌리를 찾아서
서영기	현실과 비현실의 공존, 일상 속 낯선 장면
설박	포용하는 대자연, 기온생동한 현대 수목산수
양나희	회화의 3차원적 변모, 그곳에 존재한 골판지
유지원	버려지고 잊혀진 것들에 대한 재구성
윤준영	한국화의 낯선 표현, 내재화된 불완전과 소외
이세현	현재의 렌즈로 역사적 과거를 비추다
이인성	불안한 청춘의 사색, 그 심리적 풍경
이조흠	디지털 군중 속 데이터의 미학적 수집
임용현	욕망으로 점철된 미디어 속 거짓된 환상
정승원	판화로 박제한 행복했던 유년의 시절
정유승	오스려진 삶의 흔적을 추적한 여성노동 단면
정정하	색과 빛으로 가둔 평범한 인연과 만남들
조현택	카메라를 통해 박제한 실재와 허구 사이
하루K	수목 한 상으로 차려낸 현대사회 이상향

*최근 10년 광주미술상, 하정웅청년작가상, 광주신세계미술제 등 수상작가 및 광주비엔날레 등 광주미술 주요무대에 선 작가 중 선정.

시아문화전당, 문화재단 등 무대를 펼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이런 공간은 해외와 비교해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문제는 그 이후다. 개인의 노력만큼이나 청년을 넘어 중견의 시기까지 작업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도선인 기자



무등산수박 출하 광주 대표 특산품이자 세계가 인증한 지오포드 ‘무등산수박’ 판매를 하루 앞둔 1일 광주 북구 금곡동 무등산 기슭에서 문용덕 농민이 무등산수박(일명 푸랭이)을 수확하고 있다. 이번 출하는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포장을 새롭게 단장했다. 무등산수박 가격은 7kg 3만원, 15kg 11만원, 24kg 27만원에 판매된다. **김양배 기자**

전남 국립의대 설립 ‘도민공청회’ 열린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도민공청회가 열린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부추천 용역주관사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컨소시엄은 1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일부터 9일까지 1차 도민공청

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 공청회는 7일 오후 2시 나주 동신대 혁신융합캠퍼스를 시작으로 8일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 9일 순천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이순신강당 등 중부권, 서부권, 동부권 권역별로 열린다. 8월 중 진행될 2차 공청회는 동부권, 서부권,

7일부터 사흘간 중·서·동부권 “전남 위한 최선의 방안 도출”

중부권 순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의대 설립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공청회 당 참여 인원은 300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참석자는 인터넷(<https://bitly/jnmedicalentry>), 유선(010-7222-5623), 이메일(sejunghwang@atkearney.co.kr)을

통한 사전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장 여건에 따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공청회에서는 용역사의 진행 방법 및 안전발표를 시작으로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방식, 미추천 대학 및 지역에 대한 보건의료 대책·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갈등보다 발전 방안에 초점을 두기 위해 설립 대학이나 지역에 관한 의견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민공청회는 설립방식, 사전심사, 평가심사위원회

로 이어지는 3단계 절차의 9가지 세부계획 중 설립방식선정위원회 15인 확정에 이은 두번째 계획이다. 설립방식선정위원회는 전남 1차 회의를 열고 재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주영수 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정했다. 이와 더불어 공모배경 및 추진 경과, 전남도 의료현안 분석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객관적이고 타당한 설립방식 설계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검토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Yes & true balanced]

밸런스 라인

XPERON
엑스페론